

투데이 칼럼

다시 세우는 동학의 혼(魂)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그 기억이 왜곡된 상징물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박제된 과거에 불과하다.

몇 년 전 황토현전적지에서 이뤄진 전봉준 장군 동상의 철거와 동학농민혁명군상 재건립, 그리고 상교동 교과마을 순화중 장군 생가터 복원사업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묻고 있다. 1894년 봄, 정음 황토현의 들판은 단순한 전투 현장이 아니었다.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농민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 나선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곳에서 농민군은 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었고, 동학농민혁명은 지역적 봉기를 넘어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했다.

황토현은 동학의 사상과 분노가 현실의 절단으로 전환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 성지에 1987년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은 오랜 시간 불편한 질문을 안고 있었다. 동상을 제작한 김경성이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척왜양창의'를 외쳤던 혁명의 지도자를 친일 예술가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 모순이었다. 필자는 제8대 정읍시원 시절 의회 연구단체와 함께 통영 '한산대첩공원'을 방문했을 때, 이순신 장군 개인의 영웅성을 과시하기보다 관육선 위에서 함께 싸운 수군 전체의 사투를 형상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화한 군상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논란이 되는 전봉준 장군 개인 동상 대신 동학의 정신에 부합하는 '동학농민군상'이 어떻게 시대에 맞는 대안이라고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때 제안했고,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물살을 탔다.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와 제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철거 이후에 시작됐다. '누구를 다시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특정 영웅을 신격화하지 않는 동학농민혁명군상이다.

이 군상은 전봉준 한 사람의 초상이 아니다. 이름 없이 축창을 들고 나섰던 민초들과 함께 나아가는 형상이다. 이는 동학의 핵심 사상인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의 철학을 공간 속에 구현한 상징물이다.

황토현의 군상은 동학농민혁명을 특정 영웅의 업적이 아닌, 민중 스스로 만든 역사로 되돌려 놓는다.

새롭게 조성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역시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선다.

전시관과 교육 공간, 야외 역사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곳은 동학을 보는 역사가 아니라 '체험하는 역사'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방문객들은 교과서 속 연도가 아닌, 공간의 동선과 서사를 따라 혁명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동학을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질문으로 끌어오는 중요한 변화다.

이 변화와 함께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복원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5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순화중(孫華中) 장군의 역사적 귀환이다.

전봉준, 김개남과 함께 혁명의 큰 축을 담당했던 순화중은 뛰어난 포교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호남 대도수를 이끌며 동학 세력을 결집시킨 인물이다. 그의 교향인 정음 상교동 교과마을, 이른바 '갯다리 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거점이었지만, 오랫동안 생가터 표지판이 없었다.

필자는 의정 활동 당시, 형식적인 안내관 설치로는 결코 순화중의 역사적 위상을 담아낼 수 없으며, 최소한 생가터인이라도 시가 직접 매입해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순화중 장군 생가터 복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단순히 건물 한 채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다. 전봉준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동학 기억의 지형을 바로잡고, 혁명을 함께 이끈 지도자의 삶과 선택을 역사 속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황토현의 군상이 '잡단의 기억'을 복원한다면, 순화중 생가터는 '균형 있는 역사'를 완성한다. 두 공간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음은 동학의 시작과 확산, 사상과 실천을 모두 담아내는 도시가 된다.

동상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친일의 흔적을 걷어내고 민초의 얼굴을 세우는 일, 소외된 지도자를 다시 불러내는 일은 정음이 '동학의 생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역사는 기념하는 방식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바로 세워지기도 한다.

130여 년 전 황토현을 울렸던 농민군의 함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과마을 순화중 생가터에서, 그리고 황토현의 새로운 군상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품었던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번 복원과 재건립의 과정이 과거의 청산을 넘어, 미래를 향한 성찰과 통합의 이정표로 남기를 기대한다.

독자제언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했다. 학교 주변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등교하는 아이들로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이 시기는 경찰청 통계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학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새학기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발생한 뒤의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첫째, 스쿨존 내 '30km 이하' 서행과 일시 정지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둘째, 불법 주정차 근절이다. 학교

정문 앞이나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아이들 모두의 시야를 가린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위적인 "지"라는 인위적인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가정과 학교에서의 반복적인 안전 교육이다. "꼭색 신호가 켜져도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건너자", "길

을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자"와 같은 기본 원칙을 아이들이 몸소 익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위적인 안전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만영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그들의 환경' 최만식 개인전

최만식 작가의 개인전 '그들의 환경'이 지난 6일까지 전주 동문거리 '공유화음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동문그림가게' 시리즈의 일환이다. 작가의 초창기 개인전부터 출품이었던 지구 환경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작가는 2003년 첫 개인전인 '자연, 문명, 그리고 인간의 묵시록'부터 환경과 생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극지방과 대륙의 빙하, 남극과 북극의 동물들, 열대지역에서 자생하는 극락조와 선인장 등을 주제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내용의 작품을 제작해 오고 있다. 북극곰과 북극여우 등 멸종 위기 극지방 동물들이 극락조와 같은 열대 식물과 함께 어우러져,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공존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작품의 내용을 통해 현재 지구 환경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실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최만식 작가는 "북극에서 살다 전시장으로 소환된 '그들'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존재를 대변하고 있으며, 등장시킨 동물들이 진귀하고 멋질수록 슬픔은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성찰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예술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극락조를 닮았다는 '극락조화'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북극 올빼미, 북극여우, 북극족제비, 북극곰, 북극토끼 등과 함께 배치돼 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는 2026년 2월 27일 전북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14개 시·군 지회장과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회 의사록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연합회 감사선출의 건 △총회 의결사항 위임의 건 △의사록 서명인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사업 성과의 가시적 확대가 강조됐다.

임원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김두봉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1차장 4센터장과 노

인복지관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인한수 감사의 사임에 따라 전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의안주는개정신선양회장으로 활동 중인 오재영씨를 신임 감사로 선출하였다.

이사들은 파크골프대회, 게이트블대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등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두봉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합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대회 출전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